

'5·18 광주정신'의 동시대성을 모색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 '메이투데이' 전 1년간 5개국 6개 도시에서 특별전 5월 대만 시작 내년 베니스 마무리 서울·광주·독일·아르헨티나 전시



임민옥 작 '천개의 지팡이'

5개국 6개 도시에서 1년간 '1980년 오월 정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오는 5월부터 진행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은 국내외에서 동시 다발로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광주정신'의 동시대성을 모색해 보는 기획이다.

'메이투데이(MaytoDay)'를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획자가 참여했으며 전시 장소 역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1980년 5월의 광주와 마찬가지로 질곡의 역사를 관통해온 곳을 선정, 의미를 더한다.

1995년 창립 이래 12차례의 비엔날레를 개최하며 오늘날 동시대 예술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광주비엔날레는 그 태동 과정에서부터 5·18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 파생된 '광주정신'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전 세계에 타전해왔다. 이번 다국적 프로젝트에서는 각국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신작과 함께 지금까지 광주비엔날레가 소개했던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 현대사에서 선명한 상처와 흔적을 남긴 5·18이 광주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도 유효한 민주주의 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전명하고 각국의 민주화운동 관련 유산들을 국제적 맥락에서 탐색해 보는 기획이다.

전시 주제 'MaytoDay'는 '5월(May)'과 '일상' 혹은 '하루(Day)'를 의미하는 두 단어를 병치시켜 1980년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오늘(today)로 재배치한다는 특별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광장이나 거리 등 일상적 공간에서 촉발된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제시하고, 개인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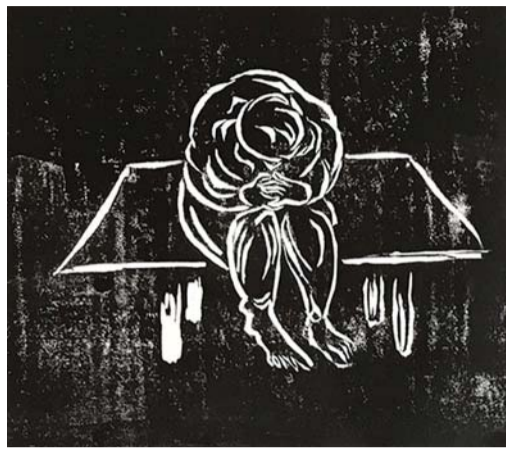
특별전은 1년간의 대장정으로 꾸려진다. 올해는 5월 1일 대만 타이베이 전시를 시작으로 서울, 독일 쾰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별 전시가 진행되며 오는 8월 광주에서 하나의 전시로 재구성해 관람객들을 만난다. 2021년 5월, 전시는 다시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중 베니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만 관두미술관 전시는 황 치엔홍 타이베이에 술대학 조교수가 기획을 맡았다. 대만 전시는 1970년대 후반 대만 민주화운동과 1980년 광주 사이의 공통된 민주주의 연대에 착안, '공감'을 키워드로 'May Co-sensus: Demo-stream in Democracy'를 선보이게 된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민주주의 정신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된 움직임들을 동시대 예술의 시선으로 포착한 기획이다. 서울 전시는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서울도



우테 메타 바우어 기획자

시간축전시관과 아트선재센터에서 동시에 열린다. 제3회 베를린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역임한 우테 메타 바우어는 아트선재에서 '민주주의 봄'을 주제로 전시를 선보인다. 김준태 시인의 글에서 영감을 받은 기획으로 광주 비엔날레에서 발표된 작품들을 민중미술과 아카이브 자료들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강연균, 오형근, 임민옥 작가 등이 참여한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전시는 '오월의 마중'이 주제다. 김진하 나무갤러리 관장이 기획한 '목판화 색선'은 확장된 역사적·예술적 맥락에서 5·18을 조명, 1980년대와 이후 민중미술 목판화를 조망하는 파트로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던 다수의 작업과 민주화운동의 면면들을 최초로 공개한다. 또 광주 지역 작가들이 참여, 5·18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된 다양한 예술적 시선들을 제시한다.



크리스티안 니암페타 작 '맨발의 아낙 재해석'

독일 쾰른 세계예술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전시는 미술기관 카스코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빛나 큐레이터가 기획에 참여했다. 2016광주비엔날레의 큐레이터로도 활동한 그녀는 'Gwangju Lessons'를 주제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실제로 운영된 광주시민미술학교를 차용, 새로운 형태로 재현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또 2016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르완다의 크리스티안 니암페타는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공동 작업으로 만든 작품을 전시한다. 쾰른은 고 윤이상 작곡가가 1981년 작곡한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가 초연된 도시이기도 하다. 쾰른 전시는 당초 4월로 기획됐다. 코로나 19로 6월 추진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아르헨티나 전시는 'Myths of the Near Future'를 주제로 부에노스아이레스 현대미술관 선임 큐레이터 하비에르 빌라와 미술사학자이자 전시기획 소피아 듀런이 기획한다.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군부독재 시절의 역사를 갖고 있다. 전시는 과거 고문치사 희생된 옛 아르헨티나 해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다. 군부독재의 역사 속에서 이뤄졌던 다양한 예술적 실천들이 공개되며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8명의 작가는 역사의 기억을 예술적 시선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이번 특별전과 관련한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꾸준히 지켜볼 예정이며 전시장을 찾지 못할 경우를 감안해 온라인 전시 방안도 함께 구상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현식 작 '꿈의 왈츠'

'황토회 50주년 기념 소품전'

19일까지, LH 휴랑갤러리

오지호·배동산·김민규·최용갑·김수호·강동문 등 쟁쟁한 6명의 작가가 지난 1969년 목포 미로화랑에 모였다. 전라도 땅을 상징하는 '황토'를 그룹 이름으로 정하고 창립전을 여는 자리였다. 이후 50년의 세월 동안 황토회는 지역 구상미술의 맥을 잇고 다양한 장르의 회원들이 합류, 다채로운 전시로 미술애호가들을 만나왔다.

황토회(회장 고희자)는 지난해 양림미술관과 목포 도립도서관 남도화랑에서 오랜 교류를 이어온 대구 지역 구상그룹 '이상화'와 함께 50주년 기념 전시회를 열어 또 다른 도약을 다짐했다.

황토회가 오는 29일까지 광주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 LH휴랑갤러리에서 '황토회 50주년 기념 소품전'을 갖는다.

지난해 열린 50주년 행사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서양화, 한국화, 목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5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참여작가들이 화폭에 풀어놓은 소재는 다채롭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 풍경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내고 정물, 인물, 일상의 모습도 담았다. 식물과 목공예가 어우러진 작품도 눈에 띈다. 전시작들은 30만원 균일가로 판매해 관람객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작가는 김현섭·박일광·신동연·배삼수·고영준·이진표·김해자·정은기 등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현덕 시인, 시조집 '밤 군산향' 펴내

지난해 송순문학상을 수상한 완도 출신 박현덕 시인이 9번째 시조집 '밤 군산향' (문학들)을 펴냈다. 삶의 현장과 역사의식을 토대로 시세계를 구축해온 숙련된 솜씨와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집이다.

"화순 군내 터미널/ 좁다란 골목 사이// 담장에 달라붙어/ 납작하게 엷드린 집// 여든 살/ 허리 휘여자가// 국밥을 팔아 준다/ 덩그러니 탁자 세 개/ 다들 삶에 너무 지쳐// 국밥을 한술 뜰 때/ 참새

몇몇 서성인다// 여자는/ 고기 잘게 썰어/ 가게 앞에 뿌린다"

위의 작품은 '국밥과 희망'이라는 제목의 연시조다. 화순 군내 터미널 인근의 허름한 국밥집의 풍경을 특유의 간결한 시어로 형상화했다. 삶에 지쳐 국밥을 뜨는 사람들이나 식당 앞에서 서성이는 참새들이나, 할머니에게는 동일한 생명이다.

시인은 필요 이상의 감정을 남발하지 않고 굳어지기 없는 언어로 대상을 개관화한다. 삶의 남루한



밤 군산향

과적박함을 담담한 시선으로 풀어내는 시인 특유의 연륜과 깊이가 느껴진다.

백애송 시인은 해설에서 "시인의 시선에 포착된 빈곤하고 서러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획일화되지 않은 진솔한 언어로 시 속에 나타난다.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변두리, 더 나아가

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편린을 단단한 필체를 통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고 평한다.

한편 박 시인은 광주대 문예창작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8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시조가 1993년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지금까지 '겨울 삼화', '밤길' 등을 펴냈으며 중앙시조대상, 김만중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산 행사대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